

지역노동시장과 인구이동

최 석 현*, 이 병 호**, 윤 상 진***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수도권 내 인구이동 규모는 최근 몇 년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내 인구이동의 추세는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수도권 내의 타 시도로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순유입 현상을 보이던 수도권 외 시도로의 순유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하여 2016년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 규모로 올라섰다(통계청, 2016). 이 같은 수도권 내 인구이동 추세는 대체로 직업이동과는 관련성이 적은 주거이동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의 수도권내 거주지 이동은 주거비 부담 증가와 신규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의 노동시장 이외의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성제 외, 2016). 즉, 서울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주거를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수도권 인구이동을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 가운데 30~40대 가구가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주하는 주요 집단으로 이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단계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이주를 결정한다고 분석하고 있다(전성제 외, 2016). 따라서 최근의 수도권내 인구이동은 직주불일치 즉 직장과 주거지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어 근로자의 출퇴근 통근시간이 늘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안에서 인구이동과 통근시간 확대가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동안 인구학, 지리학 등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구직활동에 있어 통근거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연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은 통근거리나 통근시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반해, 저소득 근로자들은 통근시간이 길어지면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근로자들은 도심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교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반면,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저소득 일자리가 많은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른바 주거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Fernandez, Roberto and Su, 2004; Preston and McLafferty, 1999). 더 나아가, 다른 연구들에서는 도시가 확장되고 주거지가 확산되면서 좋은 일자리는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가고 있으나,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수계층은 통근 비용과 거주지 이동과 통근시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실업이나 저소득 일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Glaeser, Kahn and Chu, 2001; Stall, 2006). 이와 같이 인

* 경기연구원, ** 경기연구원, *** 인하대

구이동과 통근시간은 지역노동시장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근로자들에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의 수도권 인구이동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근로자들의 통근시간에 따라 일자리와 근로자의 특성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 특성이 통근시간에 따라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수도권 거주자들의 취업에 있어 통근시간 크기와 거주지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노동패널 17차 부가 시간활용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임금근로자들의 통근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근로자들의 통근시간과 노동시장 활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이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최근 10년 동안의 수도권 인구이동 경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구이동과 지역노동시장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한다. 도출된 모델 하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내 인구이동으로 발생한 통근시간과 직주불일치가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수도권 인구이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수도권 인구이동과 관련 선행연구

1. 수도권 인구이동 추세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최근 수도권내 인구이동 경향(2005-2015)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은 최근 10년 동안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2005년 51,007명이었던 순유출 규모는 2010년 2배 규모인 115,023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137,256명이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구 이동의 특징은 2000년대와 2010년대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2000년대까지 인구 순유출이 5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2010년에 들어서는 115,023명으로 갑작스럽게 2배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4년 87,931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5년에는 약 5만명이 늘어난 137,526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서울에서 타 시도로의 인구이동이 순유입보다는 순유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타시도로 인구이동 중 순유출이 일어나는 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인접한 시도이며, 나머지 시도는 서울로의 인구 순유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는 매년 8만에서 10만명 사이가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도 6천명에서 18천명사이의 인구가 서울로부터 유입이 되었다. 2010년 들어와서는 서울로 순유출 현상을 경험하던 충청남북도와 강원도도 서울로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봤을 때, 2010년 들어와서는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시도로 서울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II -1> 서울특별시 기준 타시도 순이동자 수(2005~2015)

전입지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산광역시	-9026	-9752	-9769	-7896	-6721	-5698	-4200	-5302	-3468	-3296	-2432
대구광역시	-5939	-6110	-5574	-5104	-5005	-3638	-2913	-3703	-3042	-3673	-2847
인천광역시	6340	5133	9716	10014	6534	10412	18633	17424	14407	8832	11345
광주광역시	-5490	-4834	-4770	-3862	-2310	-1547	-1330	-1657	-1835	-1759	-1644
대전광역시	-2273	-2941	-3591	-3810	-3807	-1974	-990	-490	-716	-769	-106
울산광역시	-1947	-2066	-1920	-1205	-1667	-1742	-1090	-1108	-805	-411	-1004
세종특별 자치시	-	-	-	-	-	-	-	1983	1756	4984	5322
경기도	102729	91814	94989	88893	80330	124772	101364	99960	94337	83084	119780
강원도	-4217	-3819	-3341	-816	-1045	-62	2065	1008	647	999	2629
충청북도	-2008	-1295	-738	-378	-317	900	1565	931	574	953	1182
충청남도	-984	-1228	1345	799	-1183	1407	3049	1631	1806	1632	3155
전라북도	-7788	-7518	-4919	-4622	-2856	-1208	155	-1060	-586	-1336	5
전라남도	-5939	-7205	-5412	-3841	-1539	-1337	-324	-1053	-408	-16	714
경상북도	-6679	-6828	-6838	-5099	-3215	-2353	-1501	-2503	-2141	-2340	-1365
경상남도	-5291	-5927	-4844	-4452	-4312	-2991	-2290	-3756	-2394	-2345	-1561
제주특별 자치도	-481	-873	-1451	-627	-623	82	865	1342	2418	3292	4083
합계	51007	36551	52883	57994	52264	115023	113058	103647	100550	87831	137256

주: 서울기준 (-)는 순유입, (+)는 순유출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16.10.01 추출

그렇다면, 서울에서 인구유입을 경험하고 있는 시도들에서 어느 연령대가 거주지 이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통계청, 2016), 서울로부터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경기도는 2015년 현재 모든 연령층이 유출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순유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2010년 들어 고착화되었는데, 2010년 이전에는 유일하게 10-14세, 즉 초등학교 고학년층에서는 순유출 현상이 벌어지다가 2010년 이후에는 이 연령대에서도 유출보다는 유입인구가 많아져서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입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달리 2010년 이전에는 10세부터 25세까지 인구가 서울로 순유출현상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모든 연령 인구가 서울에서 순유입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14년과 2015년에는 20-24세의 인구는 소폭의 순유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로부터 순유입 현상을 경험하고 충남도, 충북도, 강원도는 여전히 201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15세와 29세 사이의 인구는 서울로부터의 유입보다 유출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대가 서울로 향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인구이동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 서울에서 수도권내 타시도의 인구이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거비 부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서울 지역의 인구 중 이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30-40대 가구가 출산 및 육아 단계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전성제 외, 2016). 인구이동 통계에서 보듯이, 2010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지역으로 학령인구의 유입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2010년 이후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신규 주택단지 조성으로 이러한 학령인구의 서울 유입 현상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도권 타시도로의 인구이동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지역노동시장과 인구이동

최근 일자리를 공간적 차원에서 바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노동시장 연구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노동시장 논의가 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단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점에 반하여 일자리가 특정 지역, 즉 공간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구직의 차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자리의 공간적 성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노동시장 공간 미스매치(spatial mismatch) 이론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 공간 미스매치 이론은 Kain(1968)이 처음 제기한 이후 거주지와 일자리간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이론의 근저에는 근로자들의 통근비용이 구직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시각이 담겨져 있다. 즉, 노동시장 공간 미스매치 이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구직 범위가 넓어질수록 근로자들의 구직 정보 획득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찾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취업 제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근 비용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 기회가 고소득 근로자들에 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던 기업과 공장 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의 이유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접근 기회의 제약으로 실업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Miezkowski and Mills, 1993).

이 이론이 제기된 미국에서 공간적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들은 인종간 주거분리와 고용의 교외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주로 다뤘었다. 최근에는 인종간 주거 분리와 더불어 고용의 교외화로 인하여 통근 비용 및 가사 부담을 가진 저소득 기혼 여성 혹은 한부모 여성 가정 등도 공간적 미스매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Holloway, 1996).

이와 연관되어 일부 연구들은 여성은 결혼 여부에 따라 통근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은 가사 등의 부담으로 거주지 부근에서 취업을 하는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긴 통근 시간을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근 시간이 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McLafferty and Preston, 1992).

또 다른 연구들은 통근시간 혹은 비용으로 발생하는 공간적 미스매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미국 도시를 대상으로 흑인 남성 청년 근로자들이 주로 도심 지역의 저소득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은 짧은 통근시간을 보여준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Ihalanfeldt, 1992). 지리학 등에서는 새롭게 일자리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흑인 등의 소수민족이 배제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Raphael, 1998). 이런 지역에서의 일자리는 통근이 가능한 기존 도시 지역의 근로자나 이주를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취업이 가능하지만 통근 비용이나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소수 인종 근로자들은 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주불일치에 따른 통근시간 혹은 비용에 따른 일자리의 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최근 직업탐색이론에서 논의되는 구직과정에서의 최적성 개념과도 연결된다. 최근 일자리 탐색이론에 기반 하여 근로자들의 통근시간과 거주지 이동 혹은 직업이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예, Rowental, 1998, 2004; Ommerson, Rietveld and Nijkamp, 2000; . 가령 Ven Ophem(1991)은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을 할 때 통근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Van den Berg(1992)는 근로자들의 통근시간이 짧을수록 이직을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취업자들은 통근시간에 따라 직업이동 혹은 거주지이동을 결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거주지 이동을 고민하지만 거주지 이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거주지에서 먼 지역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을 시 주거 이주의 제한으로 취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Van Ommeren, Rietveld and Nijkamp, 2000).

일자리 탐색 이론에서 지역 간 노동시장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 최적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Pissarides, 2000; Mortense and Pissarides, 1994). 일자리탐색이론(search and matching theory)에 의하면, 취업과 실업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구인구직과정에 생기는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가령,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종의 탐색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자리 탐색이론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구직활동에 있어 언제 탐색을 끝내고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로자들이 지불 가능한 탐색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즉,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비용 지출 대비 일자리를 찾은 후에 얻는 효용 수준이 최적의 균형 상태를 설정하고 이 균형 상태를 찾기 위하여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내린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탐색 이론을 확장하면 근로자들이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당시에 고려했던 비용과 효용의 균형이 변화하게 된다면 개인은 새로운 비용과 효용의 균형을 찾기 위하여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가령, 직장 근처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없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통근 시간을 고려하여 직장을 옮기는 결정을 근로자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탐색 이론은 취업이전 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이직 결정을 설명하는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분석모델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수도권 근로자들의 인구이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수도권 인구이동의 규모는 2010년 이후

로 커지고 있으며, 그 경향은 서울로부터 경기도와 인천시로의 순유출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로부터 경기도와 인천으로의 이주현상은 서울시의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배출요인과 경기도와 인천시내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양질의 주거지가 조성되었다는 흡입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 판교와 같은 신규 대단위 업무지구가 조성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도 인구 이동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인구이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 근로자들의 통근시간과 직주불일치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특성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최근의 수도권 인구이동 경향과 통근시간에 관한 노동시장 이론들을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 내에서 임금수준과 직업지위가 통근시간과 직주불일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임금수준과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수도권 내에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직주불일치와 긴 통근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근무지 이동보다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주거지 이동에 의하여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가구원 수가 많아져 보다 넓은 집이 필요한 가구일수록 근무지와 주거지간의 거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통근시간은 근로자들의 직업과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 근로자들의 직업지위와 소득이 높을수록 수도권 내에서 긴 통근시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간적 미스매치 이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수도권 내에서 좋은 일자리는 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주거지와 근무지간의 거리가 긴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통근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구 요인으로는 미혼자 혹은 아이가 없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직장 근처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녀 혹은 부모와 동거를 할 경우는 거주지와 근무지와의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수도권 이동이 주거비 상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보다 넓은 집을 찾아서 인천 혹은 경기도로의 이주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거지와 근무지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가구의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 시에는 주거비 부담에 따라 근무지에서 먼 곳으로 이주 할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통근시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2. 변수와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7차 부가조사의 출·퇴근시간 문항과 본조사의 개인 및 가구 변수를 이용하였다. 17차 부가조사는 패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간 사용과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는 그동안 패널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설문 대상자들이 하루 일과 중, 출·퇴근에 소요하는 시간 설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17차 조사 시, 임금근로자이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681명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이 중 서울시 거주자는 625명, 인천시 거주자는 223명, 경기도 거주자는 833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자 중 서울시 거주자의 약 83.84%은 출근지가 서울이며, 13.28%는 경기도, 인천은 1.92%이며, 인천시 거주자의 69.06%는 인천이 출근지이며, 서울은 16.14%, 경기도는 13.45%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거주자의 75.15%는 경기도가 출근지이며, 서울은 20.29%,

인천은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분석대상 설문자 거주지

근무지 주거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합계
서울	524	0	1	12	0	83	2	0	3	0	0	625
%	83.84	0	0.16	1.92	0	13.28	0.32	0	0.48	0	0	100
인천	36	1	0	154	0	30	0	1	1	0	0	223
%	16.14	0.45	0	69.06	0	13.45	0	0.45	0.45	0	0	100
경기	169	1	2	19	1	626	1	4	7	1	2	833
%	20.29	0.12	0.24	2.28	0.12	75.15	0.12	0.48	0.84	0.12	0.24	100
합계	729	2	3	185	1	739	3	5	11	1	2	1,681
%	43.37	0.12	0.18	11.01	0.06	43.96	0.18	0.3	0.65	0.06	0.12	100

본 연구에서 핵심 변수로 설정한 통근시간은 출근시간과 통근시간을 합하여 30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근로자들의 평균 통근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한 시간 반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인천시 거주자의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길며, 경기도 거주자의 통근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분석대상 거주지별 평균 통근시간

거주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서울	3.08	0.064	2.95	3.20
인천	3.44	0.11	3.23	3.66
경기도	3.02	0.05	2.91	3.12

분석대상을 출근지별로 평균을 분류하였을 때는, 서울이 출근지일 경우가 3.30으로 통근시간이 가장 길고, 경기도가 2.88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분석대상 근무지별 평균 통근시간

출근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서울	3.30	0.06	3.17	3.42
인천	3.10	0.10	2.90	3.29
경기도	2.88	0.05	2.78	2.98

본 연구에서는 통근시간과 더불어 직주불일치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 조사에 서는 거주지를 시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불일치 여부를 수도권내의 근로자들이 거주지와 다른 근무지를 가지고 있을 때 직주불일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인변수와 가구변수로 나누어 설정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I-4> 변수 설명

변수		단위
종속변수	통근시간	1. 30분, 2. 60분, 3. 90분....
	직주일치(시도단위)	직주불일치: 0 / 직주일치: 1
독립변수 (개인변수)	월평균임금(로그)	5분위
	종사상지위(상용직)	1.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정규직여부(정규직)	1. 정규직, 2. 비정규직
	직업지위(전문직/관리직)	1. 전문직/관리직, 2. 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농림어업직, 5. 기능직, 6. 단순노무직
	연령	만 나이 기준
	결혼상태(미혼)	1. 미혼, 2. 기혼, 3. 별거/이혼/사별
	학력(중졸)	1,중졸이하, 2.고졸, 3.대졸, 4.대학원졸
독립변수 (가구변수)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관한 주관적 인식	1. 하하...6.상상
	주거환경만족도	1.매우불만족...5.매우만족
	가구주여부(가구원)	1.가구원, 2.가구주, 3.가구주배우자
	가구원수	-
	주거형태(자가)	1.자가, 2.전세, 3.월세, 4.기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수도권 근로자들의 이동과 노동시장 활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통근시간)과 프로빗분석(직주일치) 모델을 각각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수도권 근로자들의 통근시간과 거주지

다음 표에서는 통근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먼저, 임금 수준별로 통근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근시간이 길어지다 임금 4분위 수준에서 가장 통근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위 측면에서는 임시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하여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통근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주거형태가 전세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비하여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모델 2).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근로자에 비하여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가장 짧고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도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여부 변수와 직업변수를 상호 교차했을 시(모델 3), 사무직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통근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긴 편인 반면, 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통근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편으로 분석되어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 여부에 따라 통근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판매/서비스직 근로자와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여부와 관련 없이 통근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성 근로자가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통근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배우자일 경우 가구원이나 가구주에 비하여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주 배우자의 경우 여성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 기혼자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IV-1> 수도권 근로자 통근시간 결정요인(회귀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	Std.Err.	t	Coef.	Std.Err.	t	Coef.	Std.Err.	z		
인천 (거주지)	0.392***	0.124	3.160	인천 (거주지)	0.412***	0.124	3.330	인천 (거주지)	0.389***	0.124	3.130
경기 (거주지)	-0.043	0.085	-0.500	경기 (거주지)	-0.039	0.085	-0.460	경기 (거주지)	-0.046	0.085	-0.540
월평균임금 (임금1분위)											
임금2분위	0.044	0.128	0.350	임금2분위	0.081	0.128	0.640	임금2분위	0.073	0.128	0.570
임금3분위	0.158	0.149	1.060	임금3분위	0.182	0.149	1.230	임금3분위	0.172	0.149	1.160
임금4분위	0.306**	0.149	2.050	임금4분위	0.339**	0.149	2.270	임금4분위	0.337**	0.150	2.250
임금5분위	0.220	0.163	1.350	임금5분위	0.265	0.164	1.620	임금5분위	0.261	0.164	1.590
고용지위 (상용직)											
임시직	-0.316**	0.157	-2.020								
일용직	-0.180	0.179	-1.000								
정규직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0.230*	0.138	1.660	비정규직	0.201	0.131	1.530				
				비정규직× 전세	-0.338*	0.189	-1.790				
				비정규직× 월세	-0.317	0.233	-1.360				
				비정규직× 기타	0.364	0.499	0.730				
직업 (관리/전문직)								정규직× 관리/전문직			
사무직	-0.022	0.112	-0.200	사무직	-0.024	0.112	-0.210	정규직× 사무직	-0.062	0.120	-0.520
판매/서비스	-0.405***	0.131	-3.090	판매/서비스	-0.411***	0.131	-3.140	정규직× 판매/서비스	-0.314**	0.154	-2.040
농림어업	-0.924	1.110	-0.830	농림어업	-0.878	1.106	-0.790	정규직× 기능직	-0.259*	0.153	-1.690
기능직	-0.301**	0.138	-2.190	기능직	-0.299**	0.137	-2.180	정규직× 단순노무	-0.316	0.265	-1.190
단순노무직	-0.502***	0.164	-3.060	단순노무	-0.506***	0.164	-3.080	비정규직× 관리/전문직	0.132	0.200	0.660
								비정규직× 사무직	0.473*	0.249	1.900
								비정규직× 판매/서비스	-0.430**	0.182	-2.370
								비정규직× 농림어업	-0.862	1.108	-0.780
								비정규직× 기능직	-0.272	0.187	-1.450
								비정규직× 단순노무	-0.496***	0.184	-2.700

<표계속> 수도권 근로자 통근시간 결정요인(회귀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	Std.Err.	t	Coef.	Std.Err.	t	Coef.	Std.Err.	z		
결혼상태 (미혼)											
기혼	0.073	0.217	0.340	기혼	0.036	0.217	0.170	기혼	0.041	0.217	0.190
이혼/사별/ 별거	-0.191	0.204	-0.940	이혼/사별/ 별거	-0.192	0.204	-0.940	이혼/사별/ 별거	-0.190	0.205	-0.930
주거만족도	-0.107	0.067	-1.600	주거만족도	-0.106	0.067	-1.590	주거만족도	-0.107	0.067	-1.600
가구주여부 (가구원)											
가구주	-0.454**	0.222	-2.050	가구주	-0.419*	0.221	-1.890	가구주	-0.434*	0.222	-1.960
가구주의 배우자	-0.640***	0.247	-2.600	가구주의 배우자	-0.611**	0.247	-2.480	가구주의 배우자	-0.615**	0.247	-2.490
학력(중졸)											
고졸	-0.437***	0.145	-3.010	고졸	-0.446***	0.144	-3.100	고졸	-0.457***	0.145	-3.150
대졸	-0.359**	0.163	-2.210	대졸	-0.365**	0.161	-2.270	대졸	-0.371**	0.162	-2.290
대학원졸	-0.280	0.220	-1.270	대학원졸	-0.315	0.218	-1.440	대학원졸	-0.302	0.220	-1.370
성별(여성)											
남성	0.014	0.119	0.120	남성	0.016	0.119	0.140	남성	0.015	0.120	0.130
가구원수 (1명)											
2명	0.070	0.213	0.330	2명	0.079	0.213	0.370	2명	0.105	0.213	0.490
3명	0.212	0.215	0.990	3명	0.237	0.215	1.100	3명	0.237	0.216	1.100
4명	0.280	0.219	1.280	4명	0.303	0.219	1.380	4명	0.300	0.220	1.360
5명	0.242	0.250	0.970	5명	0.275	0.249	1.100	5명	0.288	0.250	1.150
6명	0.388	0.382	1.020	6명	0.368	0.382	0.960	6명	0.376	0.382	0.980
7명이상	1.181**	0.613	1.930	7명이상	1.239**	0.613	2.020	7명이상	1.230**	0.613	2.010
주거형태 (자가)											
전세	-0.004	0.093	-0.040	전세	0.097	0.109	0.890	전세	0.001	0.093	0.010
월세	0.066	0.127	0.520	월세	0.184	0.164	1.120	월세	0.051	0.127	0.410
기타	0.100	0.243	0.410	기타	-0.016	0.292	-0.050	기타	0.082	0.243	0.340
연령대 (20대)											
30대	0.054	0.168	0.320	30대	0.069	0.168	0.410	30대	0.072	0.168	0.430
40대	-0.263	0.181	-1.460	40대	-0.245	0.180	-1.360	40대	-0.240	0.181	-1.330
50대	-0.174	0.198	-0.880	50대	-0.152	0.198	-0.770	50대	-0.144	0.198	-0.730
60대이상	-0.028	0.238	-0.120	60대이상	-0.023	0.239	-0.100	60대이상	0.016	0.239	0.070
상수	4.097***	0.403	10.160	상수	3.984	0.401	9.930	상수	4.028***	0.401	10.040
N.	1673			N.	1673			N.	1673		
Prob > F	0.000			Prob > F	0.000			Prob > F	0.000		
Adj R-squared	0.049			Adj R-squared	0.049			Adj R-squared	0.049		

* 0.1, ** 0.05, *** 0.01

2. 직주불일치와 인구이동

수도권 임금근로자들의 통근시간과 개인과 가구 배경을 살펴본 이후,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직주불일치에 연관이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는 수도권 근로자들의 직주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프로빗 분석을 한 결과이다. 먼저 앞서 통근시간과 같이 인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직주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서울과 경기도 근로자들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근로자들도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보다 직주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측면에서는 수도권 근로자들이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와 근무지의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임금수준을 5분위로 구분했을 때, 4분위와 5분위 상위 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이 거주지와 다른 타시도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정규직/비정규직 지위는 직주불일치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주거형태와의 상호 교차했을 시(모델 2), 비정규직이면서 전세 혹은 월세 형태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을 시 근무지와 같은 시도에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지위에서는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근로자일 경우 주거지와 근무지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으며, 비정규직여부와 상호 교차했을 시(모델 3)에는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일 경우 특히 근무지와 거주지 일치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정규 사무직의 경우는 근무지와 주거지가 불일치일 가능성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주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일 때 직주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구원일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배우자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 기혼자가 거주지와 같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석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주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졸 학력의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졸업 이상의 근로자들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연령이 20대에서 40대로 높아질수록 직주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대 이상으로 연령이 올라가면 다시 직주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근로자들 40대가 근무지와 거주지 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60대 이상 근로자들은 직주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정규직여부를 연령대와 상호 교차시켰을 시, 40대이며 정규직인 근로자가 직주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60대 정규직은 반대로 직주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 직주일치 결정요인 분석(프로빗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인천 (거주지)	-0.529 ***	0.115	-4.6 10	인천 (거주지)	-0.539 ***	0.114	-4.7 10	인천 (거주지)	-0.527 ***	0.115	-4.5 90	인천 (거주지)	-0.535 ***	0.115	-4.6 70
경기 (거주지)	-0.343 ***	0.082	-4.1 60	경기 (거주지)	-0.343 ***	0.082	-4.1 70	경기 (거주지)	-0.349 ***	0.083	-4.2 20	경기 (거주지)	-0.343 ***	0.083	-4.1 50
월평균 임금 (임금분위)															
임금 2분위	-0.096	0.132	-0.7 20	임금2 분위	-0.114	0.132	-0.8 60	임금2 분위	-0.098	0.133	-0.7 40	임금2 분위	-0.101	0.132	-0.7 70
임금 3분위	-0.133	0.148	-0.9 00	임금3 분위	-0.144	0.149	-0.9 70	임금3 분위	-0.132	0.149	-0.8 90	임금3 분위	-0.134	0.149	-0.9 00
임금 4분위	-0.507 ***	0.145	-3.5 00	임금4 분위	-0.529 ***	0.146	-3.6 30	임금4 분위	-0.517 ***	0.145	-3.5 60	임금4 분위	-0.501 ***	0.145	-3.4 60
임금 5분위	-0.478 ***	0.159	-3.0 00	임금5 분위	-0.511 ***	0.160	-3.1 90	임금5 분위	-0.501 ***	0.160	-3.1 30	임금5 분위	-0.473 ***	0.160	-2.9 60

<표계속> 직주일치 결정요인 분석(프로빗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고용 지위 (상용직)															
임시직	0.128	0.153	0.840												
일용직	0.074	0.178	0.420												
정규직 여부 (정규직)															
비정규 직	-0.186	0.130	-1.430	비정규 직	-0.248	0.123	-2.020								
				비정규 × 전세	0.263*	0.188	1.400								
				비정규 × 월세	0.321*	0.227	1.420								
				비정규 × 기타	-0.020	0.509	-0.040								
직업 (관리/ 전문직)															
사무직	-0.052	0.102	-0.510	사무직	-0.050	0.102	-0.490	정규직 × 관리/ 전문직 정규직 × 사무 직	-0.041	0.109	-0.370	사무직	-0.052	0.102	-0.510
판매/ 서비스	0.122	0.122	1.000	판매/ 서비스	0.129	0.123	1.060	정규직 × 판매/ 서비스	-0.014	0.141	-0.100	판매/ 서비스	0.137	0.123	1.120
기능직	0.209*	0.127	1.640	기능직	0.209*	0.127	1.650	정규직 × 기능 직	0.208	0.142	1.460	기능직	0.224**	0.127	1.760
단순노 무직	0.477***	0.168	2.840	단순노 무직	0.478***	0.167	2.860	정규직 × 단순 노무 직	0.402	0.280	1.440	단순 노무 직	0.452***	0.167	2.700
								비정규 직×관 리직/ 전문직	-0.213	0.180	-1.190				
								비정규 직×사 무직	-0.398**	0.221	-1.800				
								비정규 직×관 매/ 서 비스 직	0.186	0.183	1.010				
								비정규 직×기 능 직	0.045	0.174	0.260				
								비정규 직×단 순 노 무 직	0.373**	0.189	1.970				
결혼상태 (미혼)															
기혼	-0.218	0.208	-1.050	기혼	-0.192	0.208	-0.920	기혼	-0.195	0.208	-0.940	기혼	-0.242	0.209	-1.160
이혼/사 별/별거	-0.067	0.197	-0.340	이혼/ 사별/ 별거	-0.066	0.197	-0.330	이혼/ 사별/ 별거	-0.062	0.198	-0.310	이혼/ 사별/ 별거	-0.078	0.198	-0.390
주거만 족도	0.182***	0.064	2.860	주거만 족도	0.184***	0.064	2.890	주거만 족도	0.189***	0.064	2.960	주거 만족도	0.181***	0.064	2.850
가구주 여부 (가구원)															
가구주	0.324	0.211	1.540	가구주	0.302	0.210	1.440	가구주	0.309	0.211	1.470	가구주	0.326	0.211	1.550
가구주의 배우자	0.483**	0.233	2.070	가구주 의배우 자	0.465**	0.233	2.000	가구주 의배우 자	0.469* *	0.234	2.000	가구주 의배우 자	0.488**	0.235	2.080

<표계속> 직주일치 결정요인 분석(프로빗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Coef.	Std. Err.	z				
학력 (중졸)																
고졸	-0.24 4	0.155	-1.5 70	고졸	-0.240	0.155	-1.5 50	고졸	-0.233	0.156	-1.4 90	고졸	-0.233	0.157	-1.4 90	
대졸	-0.351 **	0.169	-2.0 80	대졸	-0.346 **	0.168	-2.0 60	대졸	-0.336 **	0.169	-1.9 90	대졸	-0.346 **	0.169	-2.0 40	
대학원졸	-0.438 **	0.214	-2.0 50	대학원졸	-0.413 *	0.213	-1.9 40	대학원졸	-0.415 *	0.214	-1.9 40	대학원졸	-0.427 **	0.214	-2.0 00	
성별 (여성)																
남성	-0.164	0.112	-1.47 0	남성	-0.165	0.111	-1.4 80	남성	-0.146	0.112	-1.3 00	남성	-0.174	0.112	-1.5 60	
가구원수 (1명)																
2명	0.122	0.207	0.590	2명	0.115	0.206	0.560	2명	0.094	0.207	0.450	2명	0.126	0.207	0.610	
3명	0.084	0.208	0.400	3명	0.064	0.208	0.310	3명	0.055	0.209	0.260	3명	0.095	0.209	0.460	
4명	0.191	0.211	0.910	4명	0.170	0.212	0.800	4명	0.170	0.212	0.800	4명	0.204	0.212	0.960	
5명	0.018	0.239	0.080	5명	-0.004	0.239	-0.0 20	5명	-0.032	0.240	-0.1 40	5명	0.031	0.240	0.130	
6명	-0.112	0.351	-0.32	6명	-0.099	0.351	-0.2 80	6명	-0.101	0.351	-0.2 90	6명	-0.085	0.352	-0.2 40	
7명이상	-0.463	0.527	-0.88	7명이상	-0.511	0.529	-0.9 60	7명이상	-0.516	0.529	-0.9 80	7명이상	-0.433	0.535	-0.8 10	
주거형태 (자가)																
전세	0.084	0.088	0.960	전세	0.013	0.101	0.13	전세	0.081	0.088	0.920	전세	0.086	0.088	0.980	
월세	0.085	0.123	0.690	월세	-0.037	0.153	-0.24	월세	0.094	0.123	0.760	월세	0.102	0.123	0.830	
기타	0.204	0.244	0.840	기타	0.206	0.289	0.71	기타	0.197	0.244	0.810	기타	0.214	0.244	0.880	
연령대 (20대)																
30대	0.160	0.152	1.050	30대	0.156	0.152	1.030	30대	0.159	0.152	1.040	정규직 × 20대				
40대	0.368 **	0.167	2.200	40대	0.361 **	0.167	2.170	40대	0.364 **	0.167	2.180	정규직 × 30대	0.094	0.168	0.56 0	
50대	0.107	0.181	0.590	50대	0.097	0.181	0.530	50대	0.091	0.181	0.500	정규직 × 40대	0.331 **	0.183	1.80	
60대이상	-0.141	0.224	-0.63	60대이상	-0.129	0.225	-0.57	60대이상	-0.159	0.225	-0.71	정규직 × 50대	0.048	0.203	0.24	
													정규직 × 60대	-0.608 **	0.29	-2.09
													비정규 × 20대	-0.362	0.252	-1.43
													비정규 × 30대	-0.011	0.209	-0.05
													비정규 × 40대	0.102	0.214	0.47
													비정규 × 50대	-0.064	0.221	-0.29
													비정규 × 60대	-0.118	0.256	-0.46
상수	0.514	0.389	1.320	상수	0.579	0.388	1.490	상수	0.522	0.387	1.350	상수	0.579	0.393	1.470	
N.	1671			N.	1671			N.	1671			N.	1671			
Prob > chi2	0.000			Prob > chi2	0.000			Prob > chi2	0.000			Prob > chi2	0.000			
Pseudo R2	0.082			Pseudo R2	0.083			Pseudo R2	0.084			Pseudo R2	0.085			
Log likelihood	-816.929			Log likelihood	-815.700			Log likelihood	-814.910			Log likelihood	-814.047			

* 0.1, ** 0.05, *** 0.01

V.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 임금근로자들의 인구이동과 지역노동시장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통계청의 수도권 인구이동에서 나타난 30대와 40대가 인구이동 규모가 가장 많다는 결과와 연결 지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 먼저 수도권 근로자들은 20대에 노동시장 진입했을 시, 상대적으로 거주지에 얽매이지 않고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그 결과 통근시간이 긴 직주불일치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직주일치를 통하여 통근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40대 이후 수도권 근로자들의 직주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다시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이 50대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최근의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수도권 거주 근로자들이 50대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따라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그 일자리가 정규직일 경우 이러한 고령 근로자들이 직주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근로자들이 월세 혹은 전세, 즉 비자가 형태의 주거형태를 가질 경우에는 근무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할 경우는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수도권 근로자들은 주택을 구매할 시, 근무지보다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주거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지 선택에서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노동시장 공간적 미스매치 연구와 직업탐색이론 연구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근로자들은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을 하고 저학력, 저임금 근로자에 비하여 직주불일치와 긴 통근시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도권 근로자들 중,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는 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에서 공간에 따라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구직 정보와 접근 기회가 화이트칼라 혹은 숙련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혼 여성은 가사부담 등으로 남성 혹은 미혼 여성에 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 일부는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정규직 여부에 따라 주거형태, 직업, 연령에 따라 통근시간과 직주일치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도권 근로자들이 정규직 여부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거주지의 선택 혹은 근무지 선택을 달리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Edwards, L.N. 1994. "Job Accessibility and the Employment and School Enrollment of Teenagers."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47(2):341.
- Fernandez, R.M. 1994. "Race, space, and job accessibility: Evidence from a plant relocation."

- Economic Geography* 70(4):390-416.
- Fernandez, R.M. and C. Su. 2004. "Space in the study of labor markets." *Annual Review of Sociology*:545-569.
- Gabriel, S.A. and S.S. Rosenthal. 1996. "Commutes, neighborhood effects, and earnings: An analysi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compensating differential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0(1):61-83.
- Gilbert, M.R. 1997. "Feminism and difference in urban geography." *Urban Geography* 18(2):166-179.
- Glaeser, E.L., M.E. Kahn, and C. Chu. 2001. *Job sprawl: employment location in US metropolitan areas*.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on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 Holloway, S.R. 1996. "Job Accessibility and Male Teenage Employment, 1980 - 1990: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Spac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48(4):445-458.
- Kain, J.F. 1968. "Housing segregation, negro employment,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175-197.
- McLafferty, S. and V. Preston. 1996. "Spatial Mismatch and Employment in a Decade of Restructuring*." *The Professional Geographer* 48(4):420-431.
- Mieszkowski, P. and E.S. Mills. 1993. "The causes of metropolitan suburbanizatio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3):135-147.
- Mortensen, D.T. and C.A. Pissarides. 1994.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1(3):397-415.
- Pissarides, C.A. 2000.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MIT press.
- Preston, V. and S. McLafferty. 1999. "Spatial mismatch research in the 1990s: progress and potential." *Papers in Regional Science* 78(4):387-402.
- Raphael, S. 1998.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and black youth joblessness: evidence from the San Francisco Bay Area."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1):79-111.
- Rouwendal, J. 1998. "Search theory, spatial labor markets, and commuting."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1):1-22.
- . 2004. "Search theory and commuting behavior." *Growth and Change* 35(3):391-418.
- Stoll, M.A. 2006. "Job sprawl, spatial mismatch, and black employment disadvantag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5(4):827-854.
- Taylor, B.D. and P.M. Ong. 1995. "Spatial mismatch or automobile mismatch? An examination of race, residence and commuting in US metropolitan areas." *Urban Studies* 32(9):1453-1473.
- Van Ommeren, J., P. Rietveld, and P. Nijkamp. 2000. "Job mobility, residential mobility and commuting: A theoretical analysis using search theory."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4(2):213-232.
- 전성제, 강미나, 박정은. 2016. "수도권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과 도시관리 측면의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세미나*. 안양: 국토연구원.
- 통계청. 2016. "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대전.